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②

‘진심’은 불법의 근본 송두리째 파괴

二棄瞋蓋 瞋是失佛法之根本 隨惡道之因緣 法樂之冤家 善心之大賊 種種惡口之府藏 是故行者於坐禪時 思惟此人現在惱我 及惱我親 讀我我冤 思惟過去未來亦如是 是為九惱 故生瞋恨 瞋恨故生怨 以怨心生故 便起心惱彼 如是瞋蓋覆心 故名爲蓋 當急棄之 無令增長

여기에서는 진심(瞋心)의 불길이 사람을 태우는데 있어서 가장 해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고인은 말하기를 “한 생각 진심이 일어나면 백만의 장애문이 열린다”고 하였다. 또 “진심의 불길이 일어날 때마다 법신 공덕을 무더기로 다 태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심이 불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것이다. 또 진심이야말로 악도에 떨어지는 인연이며, 법에 대한 즐거움을 마치 원한 맺힌 집안처럼 대하며, 선심에 대한 큰 도적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평소 애 가지고 악한 말로 상대방을 꾸짖거나 비방하는 것 모두가 진심이 구업으로 발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진심이야말로 나쁜 말로 악업을 간직하는 창고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꾸짖고 욕하는 말이야말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오라는 점이다. 이를 두고 고인은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로 인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업으로 죄 짓는 것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행자는 좌선할 때 정념이 일어나기 이전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

진심은 현재의 시간대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내 감정을 위배했던 환경을 인식하고 진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현재의 시간에 나와 친척까지도 괴롭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와 원한이 맺힌 집안을 찬

탄하면서 이간질 시키는 경우 등이다.

또한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간대에서도 나와 나의 친척을 괴롭히는 등 세 종류의 진심이 있었고, 미래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진심을 과거·현재·미래 삼세로 유추해 계산해보면 바로 아홉 종류의 진심이 성립하게 된다.

이 같은 아홉 종류의 진심을 따라서 노여움이 일어나고, 노여움을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를 따라서 원한이 일어나고, 원한과 노여움이 무더기로 일어나 마침내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거의 다 떨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진심이 본심을 덮는다고 해서 ‘진에게’라고 이름을 붙였다.

처음 질문에서 “어떤 물건이 안락함을 죽이고 어떤 물건이 근심 없음을 죽이는가” 라고 말하였다.

안락은 열반에 해당되고, 근심 없음을 보리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위없는 열반적정의 즐거움이고, 위없는 깨달음의 법락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청정한 열반의 이치에 도달한다면 항상 고요한 지혜 광채 속에서 안온하고 쾌락할 것이며, 그 자리는 삼계 내의 견혹(見惑) 사혹(思惑)과 삼계 밖의 진사혹(塵沙惑)과 근본무명혹(根本無明惑)인 오주지(五住地)번뇌를 멀리 여윈 곳이다.

만일 안락함을 살해한다면 그와 반대로 안락하지 못함을 얻게 되고, 근심 없음을 해친다면 다시 근심이 있게 된다.

바로 진심이 번뇌임을 지적한 것이다. 만일 진심을 제거할 수 있다면 청정한 열반의 이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근심하는 마음까지도 멀리 떠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심은 모든 독의 근원이며, 그러한 진심이야말로 일체 선 공덕을 제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 스님은 말하기를 “진심은 마음 속의 불과 흡사하여 모든 공덕력을 태울 수 있다. 수행자가 보리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진심을 경계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충하라”고 하였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알았다면 마땅히 자비와 인욕의 마음으로 수행하여 진심을 제멸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말한 진심은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이치가 아닌 데서 일으키는 진심이고(非理瞋), 두 번째는 이치를 순종하는 데서 일으키는 진심이고(順理瞋), 세 번째는 사비 논쟁의 진심(諍論瞋)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인욕도 역시 세 종류가 있다.

중생을 인연으로 한 자비(生緣慈)를 두는다면 올바른 이치가 아닌 데서 일어난 진심을 대치할 수 있고, 정법의 인연으로 두는 자비(法緣慈)라면 이치를 순종하는 진심을 대치할 수 있고, 마지막은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無緣慈)를 두는다면 사비 논쟁에서 일어나는 진심을 대치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자비심을 두는 방편에 의해서 ‘진에게’를 멀리할 수 있다.

진심이 다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지관을 성취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송진우교수 대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모든 독의 근원으로 일체 선공덕 제멸시켜 세종류 진심, 세종류 자비심으로 멀리해야

진심의 해독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행자는 이를 급히 버리고 진심이 다시는 증가하면서 사라지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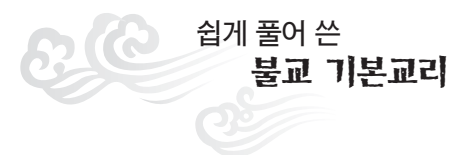
如釋提婆那以偈問佛 何物殺安樂 何物殺無憂 何物毒之根 吞滅一切善 佛以偈答言 殺瞋則安樂 殺瞋則無憂 瞋爲毒之根 瞋滅一切善 如是知已 當修慈忍以滅除之 令心清淨

이 계승은 그 의미를 도처법 문장체로 나타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락하지 못함은 생사의 세계이고, 근심이 있다 이 함은 번뇌에 비유한 것이다. 어떤 물건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이며, 어떤 물건이 일체 모든 선 공덕법을 소멸시키겠다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계승으로 답변하셨다.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여래계선 크게 자비하시어 중생이 구하면 반드시 감응하신다. 이는 마치 거대한 종이 쳐주기를 기다렸다가 종을 치는 만큼 소리가 울리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즉시 답변으로 말씀하시기를 “진심을 없애면 안락하고, 진심을 없애면 근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모든 번뇌의 근원은 아집

우리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간고통의 원인이 번뇌임을 알았다면, 번뇌를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는 마치 난마처럼 얽히고설켜, 번뇌가 이쪽에서 사라지면 동시에 저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시이래로 간단없이 상속하는 번뇌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번뇌를 끊는데 훌륭한 수행관찰, 즉 선교방편이 없다면 이고득락의 안온한 해탈의 경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처님은 번뇌의 사슬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아집을 끊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번뇌, 즉 ‘탐진치만의악견’이 한결같이 아집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집이 모든 번뇌의 주범인 것입니다.

중생들은 아집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소집을 일으키게 되고, 아소집을 집착하는 만큼 탐진치 등의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아집이 없다면 아소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아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무슨 탐욕(貪)의 대상이 따로 없겠으며, 아집이 없으면

탐진치 한결같이 아집따라 일어나 아소집 집착없으면 미혹도 사라져

‘아’를 거슬리는 역경계가 없는데 무슨 진심(瞋)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집을 떠난 상태에선 자타가 평등한데, 그곳에 무슨 교만심(慢)이 있겠습니까.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이치를 통달하여 미혹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슨 어리석음(癡)과 의심(疑)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번뇌는 아집을 따라서 일어나며, 아집의 견해만 제거된다면 그에 따른 미혹도 영원히 사라져,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가 현전(現前)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아집 때문에 실재하는 ‘아’는 단절이다. 또는 상주한다는 등의 변집견을 일으키고, 이를 따라서 모든 사건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이 이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진리라고 여기고, 그 견해만이 진실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굳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같은 견해에 대한 집착이 견고해지면 다시 견견견과 계급견견을 일으켜, 그 번뇌집착의 모습이 간단없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명철하게 통달하면서 아집의 견해를 없앨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자격 ○ 타종단에서 사미계 이상 수지한자 ○ 법당에 본존불(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이여야 함

- ☐ 사찰등록서류 ○ 입중 신청양식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앞면) 1매, 승려증 사본 1매, ○ 종단 간부 소임을 맡을분은 자기소개서 1부 제출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없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입 중 비 : 일십만원

-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교수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교수총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 ※본 종단 입중후 중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울진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 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출강 및 통신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7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제17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번호로 지원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모집과정/교육학반, 입학자격, 제출서류, 교육기간, 교육장소. Rows include details for Buddhist Law School courses and admission requirements.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8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39번지(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